

## 한국어 학습자 대상 관형격 조사 '의'의 교육 내용 재고: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오류를 바탕으로

A Study to Rethink the Components of Teaching Korean  
Genitive Particle '의':  
Based on the Errors in Korean Learners' Corpus

이수현<sup>1</sup>, 심지영<sup>2\*</sup>

Soo-Hyun Lee<sup>1</sup>, Ji-Young Sim<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Korean learners' usage pattern of '의', the genitive particle, according to semantic classification, so that it can be referred to in determin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related education. The method of this study adopts a quantitative analysis using learners corpus established b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 proficiency increases, the overall frequency of '의' increases and the number of meaning senses used increases. However, the frequency of errors also increases with it. As for the usage pattern of each sense, the meaning of 'ownership, belonging' is the most frequent, and followed by 'acting entity', 'kinship, social relations', and 'relationship(area)'. In conclusion, the meanings of 'acting subjects' and 'relationships(area)' need to be supplemented with explicit education. Other meanings need to be discussed, and decision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learning purpose and proficiency.

*Keywords : The Genitive Particle '의', Pattern of Errors, Learners Corpus, Semantic Classifi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

1 제1저자, 배재대학교 초빙교수  
E-mail: paulasoo Hyun@gmail.com

2\* 교신저자, 세종대학교 부교수  
E-mail: simji89@sejong.ac.kr

1 Pai Chai University  
E-mail: paulasoo Hyun@gmail.com

2\* Sejong University  
E-mail: simji89@sejong.ac.kr

## 1. 들어가기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언어교육에서 어떤 문법 항목을 얼마나 혹은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 고려해야 한다. 교재 및 교육과정에는 한정된 시간과 분량이 있고 그 안에서 목표한 교육을 이루어 내야 하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문법 항목의 양에 제한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 및 난이도, 해당 항목의 사용역, 사용빈도, 학습자 요구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긴요한 것들부터 선정해서 교육하게 된다. 그런데 본고는 이런 요소 외에도 학습자 오류를 빠트려서는 안 될 중요 요소로 간주한다. 다른 조건이 충족할 경우 학습자 오류율이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교육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할 뿐 아니라 기준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교육해 온 문법 항목이라 하더라도 학습자 오류율이 높다면 그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식을 출발점부터 재고해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법 항목이 다의적이고 다기능적일 경우에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표적이거나 중심적인 의미 한두 개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기능까지 다룰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오류 분석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요소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야 할뿐 아니라, 어떤 학습자군에서 어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 그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문법 항목의 다의적이고 다기능적인 요소를 나선형으로 차근차근 다루면 되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선형적 체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학습자

오류가 개선되지 못하는 문법 항목은 여럿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에 주목하여 그 오류 양상을 분석하려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조사 ‘의’는 그 의미가 21가지나 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재에서 초급에서만 다루어지고 중급, 고급에서는 명시적인 문법 항목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교재에서 다루는 것은 ‘의’의 첫 번째 의미, 즉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조사’라는 의항에 한정된다.<sup>1)</sup>

그렇다고 ‘의’의 습득이 용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의’의 전후에 나타나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가 매우 복잡 다양할 뿐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략을 해야 하는 경우, 생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경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학습자 모국어에 대응되는 문법요소가 있지만 세부적인 쓰임에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통해 학습자들이 관형격 조사 ‘의’와 관련하여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의 의미를 유형화한 후, 기준에 따라 형태 주석 말뭉치에서 관형격 조사가 쓰인 문장을 추출하여 학습자 등급별 오류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 결과는 향후 관형격 조사 ‘의’에 대한 교육 내용 재구축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관형격 조사 ‘의’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의’의 의미 분류

본고와 같이 말뭉치를 활용하여 관형격 조사 ‘의

1) 관형격 조사 ‘의’의 다른 의미들은 읽기나 듣기 등의 텍스트를 통해 일부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의' 오류 양상을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기존에도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안경화·양명희(2005)에서는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관형격 조사의 오류를 분석한 후 이에 따라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의'를 생략하는 경우,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교육해야 하며, '의'의 의미 기능도 수준에 따라 달리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언어와 한국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1]

최은지(2017)에서는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들의 관형격 조사의 첨가, 누락 오류를 살펴보았다. 발표라는 상황 맥락에서는 첨가의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로 누락의 오류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학습자들의 모어가 부정적으로 간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동 연구에서는 조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2]

Hao Xin(202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인 관형격 조사 '의'의 누락 오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논하고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누락' 오류와 관련하여 '의'의 실현에 대해 논하고 이러한 실현과 누락이 학습자들의 말뭉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누락 오류가 높아졌으며 의미적으로는 '소원적 관계'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었고 '소유 관계'일 경우가 그 다음이었다. 이러한 누락 오류를 모국어 전이와 중간 언어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교육 방안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 관계를 다룰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3]

홍고은(202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오류의 원인을 교재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속하는 문법 범주와 문장 성분으

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논의된 바가 다소 추상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워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든 혼자 공부하는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4]

위의 예를 비롯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고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바탕으로 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단일 언어권이나 특정 숙달도의 학습자 오류만을 다룸으로써 전체적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언어권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학습자들이 생산한 문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 '의'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오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관형격 조사의 의미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존재하나 의미의 세분이라는 점에서는 이희자·이종희(2006)의 『(전문가용)어미·조사 사전』[5]을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용 사전이기에 '의'의 의미를 상하위 의미로 분류하여 다른 사전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자세하여 분류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지기도 할 뿐 아니라 몇몇 의미들에서는 중복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표적인 범용 어학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를 아래 Table 1과 같이 21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희자·이종희(2006)의 과도한 세분과 중복을 피하는 동시에 다른 학습용 사전에 비해서 다양한 분류를 제공하기에 각 세부 의미(sense)를 기준으로 오류를 구분하여 살펴려는 본 연구의 의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이 『표준국어대사전』[6]의 의미(sense) 구분에 따라 이후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Table 1. the meaning senses of genitive particle ‘의’, presented in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의’의 의미(sense)	
1.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 <b>ex)나의 옷/우리의 학교</b>	
2.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가’로 바꿔 쓸 수 있음) <b>ex) 너의 부탁/국민의 단결</b>	
3.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을 만들거나 이론 형성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b>ex)다윈의 진화론</b>	
4. 앞 체언이 뒤 체언의 과정이나 목표 따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b>ex)승리의 길</b>	
5.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을’로 바꿀 수 있음) <b>ex)질서의 확립/인권의 존중</b>	
6. 뒤 체언이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태가 앞의 체언에 관한 것(해당 영역)임을 나타내는 말. <b>ex)서울의 참가/한국의 지도</b>	
7. 뒤 체언의 인물의 행동이나 행위가 앞 체언이 나타내는 사건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격조사 <b>ex)책의 저자/아파트의 주인</b>	
8. 뒤 체언이 지니고 있는 정보가 앞 체언의 속성 따위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b>ex)금의 무게/물의 온도</b>	
9.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속성의 보유자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b>ex)꽃의 향기/한국의 미</b>	
10. 뒤 체언이 앞 체언이 나타내는 어떤 동작을 주된 목적이나 기능으로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 (‘-을 하는’으로 바꿀 수 있음) <b>ex)독서의 계절, 축하의 잔치</b>	
11. 앞 체언과 뒤 체언이 의미적으로 동격임을 나타내는 말 <b>ex)각하의 칭호, 조국 통일의 위업</b>	
12. 뒤의 체언이 앞 체언과 사회적·친족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b>ex)선생님의 아들/나의 친구</b>	
13.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b>ex)하늘의 별</b>	
14.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때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b>ex)여름의 바다</b>	
15. 앞 체언이 뒤 체언의 정도나 수량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격조사 <b>ex)한 잔의 술/100℃의 물</b>	
16. 전체·부분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 <b>ex)국민의 대다수</b>	
17.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사물의 특성을 표시함을 나타내는 격조사 <b>ex)불굴의 투쟁/불후의 명작</b>	
18. 앞 체언이 뒤 체언에 대하여 비유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말 <b>ex)철의 여인/불꽃의 삶</b>	
19. 앞 체언이 뒤 체언의 재료임을 나타내는 말 <b>ex)순금의 보석</b>	
20. 앞 체언이 어떤 결과를 낳는 행동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b>ex)투쟁의 열매</b>	
21. 앞 체언이 뒤에 연결되는 조사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뒤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가짐을 나타내는 격조사 <b>ex)저자와의 대화/구속에서의 탈출</b>	

### 3.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관형격 조사 ‘의’ 오류 분석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00만 어절 규모 이상의 학습자 말뭉치를 수집 및 구축한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말뭉치의 모든 자료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말뭉치는 139개국의 학습자의 표본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92개이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원시, 형태 주석, 오류 주석 말뭉치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축 규모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scale of construction of Korean learners corpus

구분		원시 말뭉치	형태 주석 말뭉치	오류 주석 말뭉치
구어	어절 수	1,110,860	1,001,471	495,050
	표본 수	2,541	2,265	1,143
문어	어절 수	3,278,600	2,502,135	501,110
	표본 수	27,399	21,641	4,644
합계	어절 수	4,389,460	3,503,606	996,160
	표본 수	29,940	23,906	5,787

이중 형태 주석 말뭉치와 오류 주석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관형격 조사 ‘의’의 빈도와 등급별 오류의 양상은 Table 3과 같다. 여기서 누락, 첨

가, 대치, 오형태의 네 가지 오류 유형은 오류 주석 말뭉치의 주석을 따른 것이다.

**Table 3. Frequency and error patterns of '의' in the morph analysis learners corpus**

	빈도	오류 전체	누락 오류	첨가 오류	대치 오류	오형태 오류
1급	6,552	215	112	34	62	7
2급	7,298	303	162	25	106	10
3급	8,791	309	157	32	117	4
4급	9,342	310	145	36	117	16
5급	12,375	361	177	26	154	5
6급	12,736	351	133	43	135	5
6급 이상	3,377	3	0	1	3	0
정보 없음	412	6	3	0	3	0
계	60,883	1,858	889	197	697	47

먼저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빈도는 급이 올라갈수록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형태 주석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와 같이 급에 따라 표본 어절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규화를 하지 않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의 사용 빈도는 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류 주석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관형격 조사와 관련되는 오류도 학습자의 등급이 올라가면 그 오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관형격 조사는 학습자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용도 많이 하고 오류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나 그 사용법 자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 오류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급별 오류 유형의 변화를 살펴봐도 1급에서 4급까지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5,6급에 와서 다

소 줄어드나, 주석된 말뭉치의 어절 수 자체가 5, 6급의 어절이 4급보다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5, 6급의 오류 자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오류 주석 말뭉치에 나타난 '의' 관련 오류를 분석하던 중 오류의 분류와 오류의 수정에서 다수의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정확한 오류의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제외 후 집계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rror pattern of '의' in error annotation corpus (after correction)**

구분	빈도
누락	867
첨가	158
대치	689
오형태	47
합계	1,761

관형격 조사에 대한 오류로는 누락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대치, 첨가, 오형태 순으로 나타난다. 이중 학습자가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아닌지와 관련된 오류는 누락, 첨가, 대치 오류이다. 그중 누락과 첨가는 '의'의 의미별 쓰임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생기는 오류로 생각된다. 대치 오류의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잘못 사용하여 대치하게 되었는지 그 문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형태의 오류는 단순히 '내', '제', '[명사]의'를 잘못 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오형태 오류로 나타난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재(✓제) 꿈은 돈 많이 버래서 부에 살고 싶어요. (네पाल어, 3급)
- (2) 그다음에는 사회미(✓사회)의 문제를 알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베트남어, 4급)

### 3.1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의’의 사용 양상

학습자들의 오류를 살펴보기에 앞서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형태 주석 말뭉치에 주석된 관

Table 5. the patterns of use of ‘의’

의미 분류 <sup>2)</sup>		사용 양상	
		빈도	비율
1	소유, 소속	570	33.59%
2	작용 주체	414	24.40%
3	형성자	2	0.12%
4	과정, 목표	1	0.06%
5	행동의 대상	12	0.71%
6	관계(해당 영역)	127	7.48%
7	대상-인물	26	1.53%
8	정보, 속성	56	3.30%
9	속성의 보유	5	0.29%
10	목적, 기능	12	0.71%
11	동격	12	0.71%
12	친족, 사회관계	215	12.67%
13	장소	43	2.53%
14	때	78	4.60%
15	정도, 수량	32	1.89%
16	전체/부분	23	1.36%
17	특성	43	2.53%
18	비유 표현	11	0.65%
19	재료	0	0.00%
20	결과물	1	0.06%
21	이중 조사	14	0.82%
합계		1,697	100%

형격 조사를 분석하여 보았다. 학습자들이 사용한 관형격 조사를 모두 분류할 수는 없었기에 1급에서 6급 학습자들이 사용한 관형격 조사 중 각 급에서 300씩의 어절을 Table 1의 의미 분류대로 분석하였다<sup>3)</sup>.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의’의 의미별 사용 빈도는 예문 (3)과 같은 ‘소유, 소속’의 의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유, 소속’은 예문 (4)의 ‘친족, 사회관계’ 의미와 함께 초급 교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의미인데 학습자들도 이를 가장 친숙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 사회관계’ 의미의 사용 빈도는 ‘작용 주체’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난다. 예문 (5)의 ‘작용 주체’와 예문 (6)의 ‘관계(해당분야)’ 의미는 각각 두 번째, 네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들은 한국어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읽거나 듣기 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의미들도 일부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은 학습자들이 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며 참고를 위해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 속달도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 (3)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거나 여행을 가면 문화, 생활과 음식을 알려고 싶다. (타이어, 3급)
- (4) 한국 음식하고 제 친구들을 많 보고 싶을 거예요. (영어, 2급)
- (5) 21세기 현재는 우리 생활에 인터넷의 보급

2) 여기에 제시된 의미 분류 타이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분류를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편의상 붙인 것일 뿐, 각 sense의 특징을 잘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실제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고와 수정이 필요하다.

3) 형태 주석 말뭉치에서 각 급 학습자가 사용한 관형격 조사의 분석 결과를 ‘왼쪽 문맥 어절’ 기준으로 100개씩으로 정렬하였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가장 100개와 중간, 마지막 100개로 300개를 추출하였다. 다만, 추출된 예 중에서 관형격 조사의 선행 명사로 하나의 명사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경우(예를 들면 ‘한국의’가 10개 이상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가 아닌 앞과 뒤의 페이지를 선택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의미 분류를 하는 중에 발견된 오류나 분석이 불가한 경우, 표본의 중복으로 같은 예문이 두 번 발견된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어와 구어의 구분은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이는 오류 양상과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함이었다.

으로 장보화 사회이다. (중국어, 4급)

- (6) 현재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학력의 격차에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 (일본어, 5급)

### 3.2 관형격 조사 누락 오류

이제 본격적으로 관형격 조사 '의'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오류 주석 말뭉치에서 나타난 관형격 조사 누락 오류를 의미 분류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 Fig. 1과 같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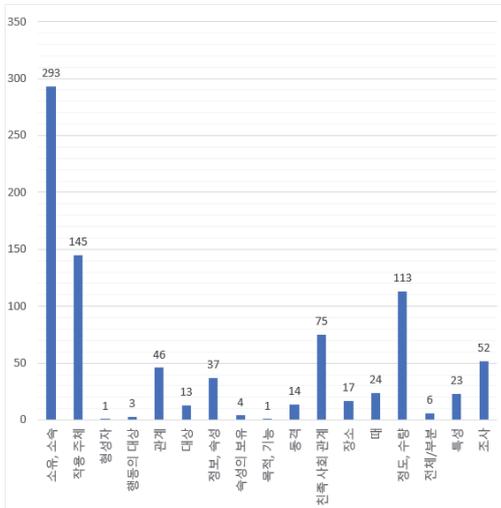


Fig. 1 Omission Errors of '의'

의미 분류별로 나누어 본 관형격 조사의 누락 오류는 '소유, 소속'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작용 주체' 의미와 예문 (7)과 같은 '정도' 의미가 각각 10%를 넘었다.

- (7) 우리 집에는 네 명(✓명의) 가족 있어요. (중국어, 2급)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하게 되는 '소유, 소속'의 의미가 누락 오류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가장 친숙하게 쓸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오류도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의미의 관형격 조사는 수의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지나치게 적용하여 누락 오류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작용 주체'나 '정도, 수량'에 대하여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학습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나 구체적인 예를 잘 접할 수 없다는 점이 오류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의 수의적 생략이나 '소유, 소속' 외의 의미에 대해서 교재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적으로 교재에 신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중, 고급 단계에서 한 번 이상, 교실 상황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락 오류에서 10% 이하의 비율을 보이는 의미들 중에서는 '친족, 사회관계', '관계(해당영역)', '정보, 속성(예문8)'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른 조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의 오류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 이외의 분류에서는 모두 '소유, 소속'과 같은 범주로 분류되고 있어 결국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가장 높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현대 사회 광고가 물건(✓물건의) 성능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판매량인 것 같다. (중국어, 5급)

4) 오류의 상황이 구어와 문어일 때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누락과 첨가 오류를 구어와 문어로 나누어 보았을 때 별다른 양상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의 전체 숫자를 늘려서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6. Omission errors of '의' according to proficiency in error annotation corpus

의미 분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보 없음
1 소유, 소속	43	72	58	40	43	37	0
2 작용 주체	13	17	16	43	32	23	1
3 형성자	0	1	0	0	0	0	0
5 행동의 대상	0	0	0	0	2	1	0
6 관계 (해당영역)	0	1	9	7	17	12	0
7 대상-인물	4	8	1	0	0	0	0
8 정보, 속성	1	4	8	7	12	5	0
9 속성의 보유	0	0	0	2	0	2	0
10 목적, 기능	0	1	0	0	0	0	0
11 동격	0	1	2	0	6	5	0
12 친족, 사회 관계	33	17	12	7	2	4	0
13 장소	4	5	2	1	2	2	1
14 때	1	3	7	3	5	5	0
15 정도, 수량	5	18	20	15	33	22	0
16 전체, 부분	0	0	0	4	2	0	0
17 특성	0	0	6	3	8	6	0
21 이중 조사	7	11	12	9	8	5	0
합계	111	159	153	141	172	129	2

Table 6은 관형격 조사 '의'의 누락 오류를 등급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유, 소속'이나 (9)와 같은 '대상' 의미, 그리고 '친족, 사회 관계'에 해당하는 의미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오류가 적게 나타난다<sup>5)</sup>.

(9) 이것은 남녀 역할(✓역할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에 따라 나타난 가족 형태라고 생각한다. (일본어, 5급)

오류의 빈도 자체가 매우 적게 나타난 '대상'을 제외하고, '친족, 사회관계'의 경우 사용 자체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오류도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유, 소속'은 사용과 오류가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는데, 이를 통해 고급으로 올라가도 '소유, 소속'의 '의'는 사용하기에 많이 사용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작용 주체', '관계', '정보, 속성', '정도, 수량'의 의미에서는 급이 올라갈수록 오류도 많아진다. 해당 의미들은 일차적인 소유 관계를 벗어나는 의미로서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락 오류도 중고급 학습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의미를 가진 관형격 조사가 실현되는 환경에 대해 중고급 과정에서 더 명시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의미 관계와 다르게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오류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문 (10)과 같이 관형격 조사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다. 한 개의 조사만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에게 명사구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이중 조사 사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성공 체험을 쌓이고 앞으로(✓앞으로의) 일에 대한 활력이 될 것이다. (일본어, 5급)

'만'과 '도' 같은 조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조사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점을 강조하여 교육해도 그 쓰임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이 많다. 따라서 '의'가 포함된 이중조사에 관한 내용 또한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고급으로 갈수록 표본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오류 주석 말뭉치는 형태 주석 말뭉치와 같이 전체 주석된 표본이 급에 따라 차이가 심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오류의 경향은 빈도의 비교로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3.3 관형격 조사 첨가 오류

누락 오류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첨가 오류이다. 아래에 첨가 오류 분석 결과를 Table 7과 Fig. 2로 제시한다.

Table 7. Addition errors of '의'

의미 분류		첨가 오류	
		빈도	비율
0	분류 불가	6	3.80%
1	소유, 소속	39	24.68%
2	작용 주체	6	3.80%
3	형성자	0	0.00%
5	행동의 대상	4	2.53%
6	관계(해당영역)	31	19.62%
7	대상-인물	0	0.00%
8	정보, 속성	4	2.53%
9	속성의 보유	0	0.00%
10	목적, 기능	6	3.80%
11	동격	7	4.43%
12	친족, 사회관계	0	0.00%
13	장소	5	3.16%
14	때	17	10.76%
15	정도, 수량	11	6.96%
16	전체, 부분	3	1.90%
17	특성	14	8.86%
21	이중 조사	5	3.16%
합계		158	99.99%

관형격 조사의 첨가 오류는 누락 오류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생략을 해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사용해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오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첨가 오류에는 '의'를 사용하였으나 의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첨가 오류의 빈도는 '소유, 소속', '관계', '때(예문 11)', '특성', '정도, 수량' 순으로 높게 나타나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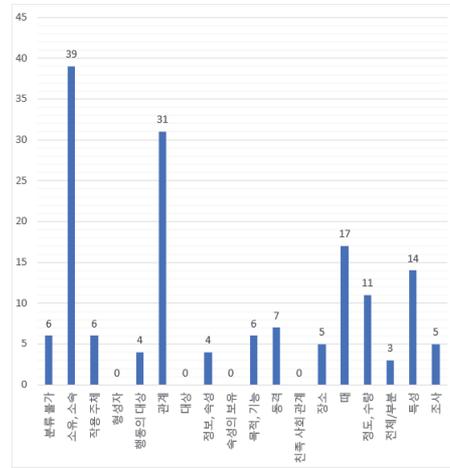


Fig. 2 Addition errors of '의'

락 오류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누락 오류에도 많이 나타났던 '대상'과 '친족, 사회관계'에 대해서는 첨가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의미 관계에 있는 명사구들의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의'를 언제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언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11) 두 점제는 한국 옛날의(✓옛날) 생활을 좋아한다. (타이어, 3급)

### 3.4 관형격 조사 대치 오류

대치 오류는 관형격 조사 대신 다른 어휘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혹은 관형격 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Table 8에서 두 경우를 대별하여 보인다.

Table 8. Substitution errors of '의'

대치 종류	대분류	하위 분류	대치 항목	빈도	
관형격 조사 → 다른 어휘	체언	의존 명사	중	1	
		일반 명사	동안	2	
	용언	공정 지정사	이	22	
		동사	대하	1	
		보조 용언	하	1	
	관계언	부사격 조사		과	9
				로	4
				에	94
				에게	25
				에서	36
				와	7
				으로	4
				한테	1
		보격 조사		가	1
				이	5
		목적격 조사		를	42
				을	50
		주격 조사		가	146
				이	80
		보조사		는	87
				은	46
				도	3
	접속 조사	와	5		
	의존 형태	명사형 전성 어미		ㄴ	3
				는	2
		형용사 파생 접미사	되	1	
		명사 파생 접미사	적	3	
동사 파생 접미사		하	2		
다른 어휘 → 관형격 조사	관계언	관형격 조사	의	6	
합계				689	

관형격 조사로 잘못 쓴 경우에는 주격 조사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보조사 '는/은'도 다음 예문과 같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 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12) 사회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남자가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국어, 5급)

(13) 내(✓나는) 한국 시골에 가본 경험을 잘 기억한다. (영어, 5급)

이러한 오류는 관형격 조사의 두 번째 의미인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라는 의미를 너무 넓게 적용시켜 대치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의미이니만큼 자세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치 오류가 많이 일어난 것은 부사격 조사 '에'이다. 단순히 보면 발음상의 오류로 볼 수도 있겠으나 부사격 조사 '에'는 의미가 다양하니만큼 그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혼동을 많이 일으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ble 9. the meaning of adverbial particle '에' which substitutes genitive particle '의'

구분	빈도
처소	17
시간, 때	16
진행 방향	2
원인	1
행위나 감정의 대상	1
행위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18
목적, 목표	10
조건, 환경, 상태	2
기준이 되는 대상, 단위	12
특정한 대상(대한, 관한 등)	15
합계	94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부사격 조사 '에'의 의미 16개 중 '의'로 대치오류가 일어난 것은 Table 9에서 제시한 10개 의미에서였다.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보인 의미는 '행위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처소', '시간, 때', '특정한 대상(대한, 관한 등) 순이었다. 이 중에서 먼저 '특정한 대상'의 의미는 '[명사에 대한], '[명사에 관한]에서 사용되는 '에'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이미 문법 항목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따로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처소'나 '시간, 때'의 의미는 관형격 조사의 의미에서도 같은 의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들은 '에'를 '처소'나 '시간'과 함께 쓰이는 조사로 가장 먼저 배우기에 이처럼 굳이 '의'를 쓴 것은 '의'가 '처소/시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 '행위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에 대한 오류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14)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우열반을 생겼는데 과열 경쟁의(✓경쟁에) 영향을 미치면서 등급별 이동 수업으로 편하고 있다. (중국어, 6급)
- (15) 결혼 난 결혼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줘요. (타이어, 3급)

주격, 목적격 조사를 제외한 다른 조사들은 문장에서 뚜렷한 '격'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이러한 관계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격조사와의 쓰임에 혼란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형격 조사는 명사구 내에서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내에서 담당하는 성분 및 의미 관계 등을 잘 교육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타난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양상과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에서 가장 먼저 명시적으로 배운 의미를 많이 구사하고 있으며, 교재를 통해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은 의미도 상당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의미 관계로는 '소유, 소속', '친척, 사회관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 분류는 제대로 사용이 된 경우도 많으며 누락 오류에서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첨가 오류에서는 '소유, 소속'에 대한 오류가 많았고 '친척, 사회관계'에 해당하는 오류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이외에 '작용 주체', '관계'의 의미도 사용과 오류 양쪽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관형격 조사와 관련된 오류의 특징은 많이 사용하는 의미 분야에서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것이다. '소유, 소속'의 의미는 명사구 내의 명사들의 관계에 따라 생략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누락과 첨가 모두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은 '친척, 사회관계'의 의미에서는 누락 오류만 나타나고 첨가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친숙한 의미라고는 하여도 학습자들은 이러한 의미 관계가 있는 관형격 조사를 실현시켜야 하는지 생략해도 되는지 잘 알지 못해 오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실현과 생략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친숙한 의미 외에 학습의 단계에서 자

연스럽게 노출되어서 알게 되는 의미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작용 주체’나 ‘관계’, ‘정도, 수량’의 의미 관계는 듣거나 읽기 지문을 통해 많이 제시되므로 학습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하나, 사용이 많았던 것에 비해 오류도 많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의미들과 관련된 오류에서는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오류들이 많았는데, 둘의 관계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관형격 조사를 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혹은 관형격 조사와 다른 조사 중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잘 몰라서 발생한 오류가 많이 보였다. 다른 의미들에서보다 ‘작용 주체’의 의미에서 이러한 예들이 많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치 오류에서는 주격 조사인 ‘이, 가’를 ‘의’로 대치한 오류가 많았다. 이러한 오류들은 학습자들이 명사와 명사 사이의 의미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이/가’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의’를 써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사절이나 명사구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의미 범주들에 관해서는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류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범주에 속한 관형격 조사도 그것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떤 단계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통한 결과가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교재나 교육적 상황에는 반드시 시간과 물질적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고급 학습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처럼 다의성을 가진 항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느 단계에서 제시할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앞으로 그러한 연구 문제들에 기초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1] 안경화·양명희,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의'의 교수 방안", *이중언어학*, 29(0), pp.195-223, (2005).
- [2] 최은지, "중국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관형격조사 오류-첨가 오류와 누락 오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77, pp3-24, (2017).
- [3] Hao Xin,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격 조사 누락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21).
- [4] 홍고은,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성분 이해 수준과 한국어 교재의 문법 교육 내용 - 관형격 조사 '의'를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0(84), p417-442, (2021).
- [5] 이희자·이중희(2006),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 문화사, (2006).
-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